

I. 시작하는 말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고, 아버지는 농부이시며, 우리는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관계와 어떤 모습을 원하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바른 관계 속에서 믿음과 삶은 변화를 겪게 되며, 그 가운데 주 안에서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열매 맺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II. 중심 말씀

1. 믿음은 관계의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은 믿음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임을 계속해서 언급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질서로 창조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바른 질서 속에서 바른 관계를 취해야 합니다. 우리의 성공의 이유와 실패의 이유를 떠나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절대 우리는 농부도 나무도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가지로서의 바른 태도와 자세를 견지해야 합니다.

나눔 질문) _____

2. 바른 관계가 변화를 가져옵니다.

바른 관계 속에 있는 믿음은 변화를 요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멋지고 좋은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을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두 가지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담는 것과 닦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면 예수님이 보여야 합니다. 그분을 담고 닦아서 그것이 우리의 성품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 열매들은 모두 성품에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관계는 서로에게 좋은 성품으로 맺어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좋아하시는 모습을 통해 관계 맺기를 원하고, 주님은 그런 성품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십니다.

나눔 질문) _____

3. 그 변화는 주님 때문에 가능합니다.

가지가 나무를 떠나 맺은 열매는 나무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깃들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가져갈 때, 우리는 변화를 경험하게 되며, 동시에 이웃과의 관계 또한 바르게 가질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가지로서 주님 안에 있는지 스스로 물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 없이도 삶을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은 실상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의미가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나눔 질문) _____

III. 정리하는 말

우리 모두는 먼저 주님 안에 거하기를, 주님을 더 사랑하길 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우리를 통해 열매 맺는 은혜를 발견하는 우리의 삶이 될 것입니다. 열매는 주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맺어지며, 반대로 우리는 주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게 됩니다.

1. 환영의 시간(Welcome) : 행복한 기억 나누기

◆ 임재찬양

- 1)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 2)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 마음문 열기 : 한 주간 감사 나누기, 게임

2. 경배의 시간(Worship) : 복음성가나 찬송가로 경배하기

◆ 찬송가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찬202)

- 1)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다
- 2)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댄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 3)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 4) 주 예수 날 사랑 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 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 5) 주 예수 날 사랑 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후렴)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 쏟아놓는 기도 : 나의 죄, 나의 아픔, 나의 두려움, 나의 걱정

◆ 주 안에 있는 나에게

- 1)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댄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 2)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 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 3) 내 주는 자비 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 4)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 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후렴)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 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3. 말씀 나눔의 시간(Word) : 구체적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기

◆ 말씀 나눔 및 결단의 기도

◆ 기도제목 나눔 및 합심 기도

4. 사역의 시간(Works) : 역사하시는 주님께 기도하기

◆ 교회를 위한 기도 - 담임목사님과 교역자들을 위해

◆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 한반도에 주님의 평강이 넘치기를, 위정자를 위하여

◆ 세계선교를 위한 기도 - 해외 파송 선교사님들을 위해